

## 01. 교과서 벗어나기

선생님, 요즘 아이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학교 수업 마치자마자 이 학원 저 학원 빼듯한 스케줄에 맞춰 다니느라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 학급에도 제법 있지요? 공부와 학원 스트레스로 축 처진 어깨. 파김치가 된 학생들 보면, 우리가 어릴 땐 맘껏 뛰어놀았는데 싫어서 맘이 짎합니다.

오후 수업 시간, 유달리 어깨가 처지고 눈동자에 힘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럴 때 교과서를 과감히 덮어버리고 따뜻한 질문으로 아이들의 마음 문에 톡톡 노크를 합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 봐>라는 동화책을 가지고 기분과 관련된 기억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고릴라가 묻습니다. “기분이 어때?”, “음 다 재미없어.”, “가끔은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정말 정말 행복할 때도 있어.”, “슬플 때도 있지만”,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때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드나요?” 학생들은 대답합니다. “학원에서 재시 걸려서 집에 못가고 남을 때요.”, “친구들 다 노는데 저만 학원가야 될 때요.”, “학원 숙제하느라 놀지 못했을 때요.”, “부모님께 공부 안하고 논다고 꾸중 들었을 때요.” 학생들의 스트레스의 1등 공신은 바로 학원, 공부입니다. 이쯤해서 교사는 <학교와 집사이(김은영)>의 시를 낭송해 줍니다. ‘학교와 집 사이는 5분 거리다 그런데 나는 5시간 걸린다’라는 내용의 시를 듣고 학생들을 서로 자신의 학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원을 5개나 다니는 시 속의 아이가 참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동시집이나 어린이시집에서 학원이나 공부관련 시를 찾아보았습니다. 학원시, 공부시를 찾아서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찾아온 시들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나누면서 공부와 학원 스트레스를 조금은 풀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찾은 몇 편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학교 가방 놓고 피아노 가방, 미술 가방, 또 다른 학원 가방을 줄줄이 놓고 들고 가면서 휴하고 한숨을 쉬는 고단한 학생의 모습을 그린 <월요일(이안)>, 시험을 마치고 엄마 마음대로 학원을 바꾸는 이야기를 쓴 <올백 학원(이정인)>, 쉬는 시간, 학원 오고가며 찜찜이 10분만 놀 수 있는 여유 없는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 <10분 친구(이정인)>, 학원에서 공부하고 과자를 받아먹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조련사, 과자는 먹이로 빗대어 표현한 4학년 학생의 <학원>시와 ‘새들은 시험을 안 봐서 좋겠구나’라고 노래한 6학년 학생의 <시험>시, 깜깜한 밤 학원에서 돌아오면서 두 친구가 만나 외로운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4학년 학생의 <외로운 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시는 학원과 공부로 힘든 학생들의 생활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담담히 그려내고 있기에 ‘나랑 똑같네, 나보다 더 심하네’라는 공감으로 시에 풍덩 담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학원과 공부 관련 공감 시들은 학년이나, 수업 학습목표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수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지 사이즈로 출력하여 시 확대도를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학습지를

만들어도 사용해도 된답니다.

시 확대도가 준비되면 이젤을 이용하여 갤러리 협력 방식으로 각각의 시를 모둠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감상할 수도 있답니다.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시 한편을 집중적으로 다루어도 좋습니다. 각 학급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들을 가지고 어떤 차시에 재구성하여 적용할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 과중한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학생들의 일상 경험을 그대로 담아 쉽게 쓰여진 생활시이므로 몇 가지 질문으로도 몰입이 가능하지요. 시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음은 이 시들을 가지고 학년별로 재구성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 1학년은 1학기 4단원 <기분을 말해요>
  - 시를 읽고 시 속 인물의 기분을 말하여 봅시다.
- ▶ 2학년 2학기 1단원 <생각을 나타내어요>
  -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읽어 봅시다.
- ▶ 3학년 2학기 7단원 <감동을 느껴 보아요>
  - 시를 읽고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봅시다.
- ▶ 4학년 1학기 9단원 <시와 이야기에 담긴 세상>
  - 시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면서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 ▶ 5학년 1학기 4단원 <작품에 대한 생각>
  - 시를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해 봅시다.
- ▶ 6학년 1학기 9단원 <주장과 근거>
  - 시를 읽고 학원과 관련된 내 생각을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논설문을 써 봅시다.

이제 3단계 대화 모형으로 6학년과 함께 한 수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1단계 대상(텍스트(시))과의 대화입니다.
  - <월요일>을 전체, 모두가 함께 낭송하고 지금 자신의 생활과 비교하여 질문을 통해 짝 대화를 나눕니다. “너는 학원을 몇 개나 다니니?”, “제일 가기 싫은 학원은 어디야? 그 이유는 뭐야?” 등 대화가 수다떨기로 이어집니다.
  - 시 속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도록 비계 역할을 해주는 디딤 질문을 통해 ‘학원’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학원에 왜 다니는 걸까요?
  - 나에게 학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나요?
  -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내가 지금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나는 학원에 가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나요?
  - 공부를 제대로 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 얼마나 학원선생님의 강요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학원 공부가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나요?

- 어떨 때 학원을 가기가 싫은가요?
- 학원 공부가 도움이 된 적이 있나요? 언제였는가?
- 다니고 싶은 학원은 어떤 학원인가요? 등

▶ 2단계 타자(친구)와의 대화입니다.

학원을 다니며 힘들어 하고 있는 나와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공감, 위로, 응원, 이유를 묻는 말, 대안 등)을 모두 친구들과 나누며 시 속 인물의 입장에서 ☆표처럼 중요한 내용 질문 ★스럽고 시시콜콜한 기분 질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과 인물을 초대하여 역지사지 인물초대석의 인터뷰를 하면서 인물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 3단계 : 자기(내면화)와의 대화입니다.

배움 공책에 현재 자신의 학원 생활을 되돌아보며 문제점이 있다면 찾아서 정리를 하고 일기장에 부모님께 자신의 학원 생활에 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 씁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하기를 과제로 제시합니다.

자, 교과서 밖의 텍스트를 가지고 질문과 이야기로 힘든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 격려하면서 시로 아이 마음을 담아 어루만져 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들어 주기만 하여도 아이들은 시 속에 자신의 마음을 술술 풀어 놓고 맘껏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울림이 있는 행복한 수업이 아닐까요?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수업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수업 고민은 배움 중심 수업을 꿈꾸는 교사를 한 뼘씩 성장시켜 줄 거라 믿습니다. 아래의 표는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시 수업 재구성이나 짬짬이 시로 사용한 교과서 외 시들입니다. 몇몇 시들은 학년에 구매 없이 전 학년에 활용한 시들도 있습니다. 교과서의 시가 아이들의 삶을 담을 수 없을 때 교과서를 덮어두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삶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활용한 생활 동시와 어린이시들
남자들의 약속(이정인), 밥도 가지가지(안도현), 라라라(이정인), 요요요(이정인), 찰떡(안도현), 사이다(안도현), 아가(김은영), 월요일(이안), 학원(반송초등4학년 이주남), 학교와 집 사이(김은영), 10분 친구(이정인), 올백학원(이정인), 시험(동해남호초등6학년 이우진), 딱지따먹기(강원식), 엄마가 아플 때(정두리), 공기놀이(손혜진) 제기차기(서정홍), 맛있다 맛없다(김승진), 말이 안통해(김미혜), 흔들리는 마음(임길택), 돼지족발(김미혜), 동생 때문에(이혜영),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김은영), 이 비뽀데 웬 설사(김용택), 급식 시간(구교필), 줌줌줌, 엄마도 떼쟁이(김희정), 만두(이지영), 엄마와 나(김정연), 하루(김은영), 길마중(윤동향), 고슴도치(조은비), 엄마의 다이어트(장정윤), 내 동생(김동환), 스며드는 것(안도현), 지금은 공사 중(박선미) 농촌 아이의 달력(안도현), 내가 쓴 글자(문명래), 길마중(윤동향), 몸살(서정홍)
* 찜찜이 시간 활용한 시와 시집 풀꽃(나태주), 너에게 묻는다(안도현), 지렁이(이외수), 맛집, 포토샵 다 쓴 치약, 선풍기, 시험(하상욱), 없네, 국수가 라면에게, 노란 친구들(안도현) 등 - 하상욱 <서울시1,2>, 안도현 <남남> 등

## 02. 나에게 적용하기

요즘 저는 수업 친구와 함께 박웅현의 <여덟 단어>를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덟 단어 중에서도 ‘자존(自尊)’과 ‘견(見)’은 저에게 읽을 적마다 새로운 질문과 메시지를 주면서 저를 토닥토닥 달래줍니다. 특히 견(見)이라는 단어는 자세히 들여다보기, 천천히 보기, 낯설게 보기를 내포하고 있으며 늘 빨리 대충 일을 해내기에 급급한 여유 없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적용할 거리를 찾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견(見)은 저에게 시 감상과 시 쓰기 활동에 많은 생각과 자극을 주는 단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시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생활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를 쓰고 싶은 맘이 들까?’ 고민을 하던 중 견(見)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시 안도현의 <스며드는 것>에서 간장게장을 담글 때 살아 있는 게에 간장을 부어 삭히는 장면이 나오고, 꽃게는 알들에게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어쩔 시인은 이런 시선으로 꽃게를 볼 수 있을까요? 작가는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시인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견(見)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6학년 1학기 1단원 비유적 표현에서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 학생들에게 친구와 싸웠을 때의 경험을 떠올려 국어 활동 교과서에 실린 <지금은 공사 중>이라는 시를 읽고 비유적 표현을 파악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시 확대도를 보여주며 질문을 시작합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물이 새는 수도관, 페인트칠하기”, “그림을 보니 어떤 내용의 시 일 것 같나요?”,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떠오른 장면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선생님의 시 낭송을 들어봅시다.” 배경음악과 함께 박선미 시인의 <지금은 공사 중>이라는 시를 들은 아이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비유적 표현이 많아서 뭔가 딱 잡히지는 않아도 무언가를 느끼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며 이 시가

아이들의 마음 속에 쏙 들어가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이 시를 듣고 난 첫 느낌을 한 단어로 줄줄이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공사 - 친구 - 반성 - 공사장 - 복잡 - 정리 - 미안함 - 우정 - 만남 - 기다림 등 수많은 단어로 시의 첫 느낌이 표현되었습니다. 자신이 친구와 싸우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이 시와 오버랩 되면서 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런 아이들의 삶이 그대로 담긴 시 한편은 그저 몇 번의 낭송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시가 삶 속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사는 질문을 통해 생각을 구체화하고 서로 간의 질문과 이야기를 통해 생각들을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모둠 재미 낭송을 통해 시를 충분히 읽고 난 후 시의 내용을 감 잡은 아이들은 마음의 울림을 찾는 활동에서 그들만의 용어로 시의 내용을 해석합니다. 이 때 가르쳐야만 할 것 같은 비유적 표현의 의미는 아이들의 입말로 술술 풀이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교사의 질문권을 학생들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 역지사지 인물초대석은 시인과 시 속의 인물을 초대하여 인터뷰를 하는 활동입니다. 저는 이 활동을 위해 별별 질문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별별질문이란 별표처럼 중요한 내용 질문과 별스럽고 시시콜콜한 기분 질문으로 시의 내용과 시 속 인물의 마음을 묻는 질문을 말합니다. 인터뷰 전에 질문을 만들 시간을 주고 인물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물이 되어 보고 싶은 사람이 시인과 시 속의 나, 친구가 되어 질문에 답하고 수정이나 보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초대석에 앉은 시인을 비롯한 시 속의 인물들은 자신이 정말 시 속의 인물이 되어 기분이나 마음을 묻는 질문에는 자신의 경험을 녹여낸 상상 대답을 합니다. 기발한 생각에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

- 질문1 : 시인은 왜 이 시를 쓰게 되었나요?
  - 시인 : 요즘 사춘기 친구들이 감정 조절이 안 되서 친구들과 자주 싸우더라구요. 그래서 이 시를 읽고 친구와 다투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입니다.
  - 질문2 : 무슨 일로 친구에게 화를 내었습니까?
  - 나 : 친구가 제가 싫어하는 별명을 계속 부르며 놀려서입니다.
  - 질문3 : 친구는 왜 싫다는데 계속 별명을 불렀습니까?
  - 친구 : 장난친 거라 친구가 이렇게 화 낼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일로 화를 낸 친구 때문에 속상했는데 친구의 속상한 마음을 알 거 같아요, 사과하고 싶어요.
  - 질문4 : 시 속의 나는 친구의 마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사과하는 친구에게 어떤 마음이 드나요?
  - 나 : 별거 아닌 일로 화낸 저도 미안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등

인물초대석은 참 신기합니다. 여기만 앉으면 학생들은 정말 자신이 시인이 되어, 시 속의 인물이 되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내면서 말입니다. 횃수를 반복할수록 질문도 대답도 점점 구체적이고 시시콜콜 자세해져갑니다. 그런 가운데 학생들은 시 속 인물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라면 어땠을까 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몇 번은 질문하기가 어색하고 힘들어도 교사의 질문과 경청의 모습을 학생들은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학생들끼리 질문이 오고가며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내용을 묻는 질문, 장면을 상상하여 묻는 질문, 실천과 적용으로 심화된 질문 등 질문의 수준도 점점 높아져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하는 걱정 없이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 허용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 학생1 : ‘공사 중’이라는 말이 마음을 와 닿습니다. 친구와 별거 아닌 일로 싸우고 나서 복잡하고 뭔가가 정리가 안 된 마음을 공사하고 있다고 빗대어 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를 그만하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학생2 : 저는 특하면 물이 새는 수도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요즘 화가 불쑥 나고 특하며 화풀이를 하는데 저의 모습과 비슷해서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런데, 나도 라는 반응을 보인다)
- 학생3 : 페인트칠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제 마음을 예쁘게 색칠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시를 읽으니깐 공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학생4 : 얼른 공사가 끝나서 복잡하고 불편한 마음이 정리가 되어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5 : (울먹이면서) 선생님 저 지난 달에 3반이랑 축구를 하다가 제가 실수로 자살골을 넣었어요. 그 때 우리 반 친구들이 저를 큰 소리로 비난하고 놀렸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이 시를 읽고 나서 저도 공사를 했어요. 지금은 70% 공사가 되었어요.
- 교사 :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 일이 떠올라서 곧 공사가 끝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이 시가 정말 고맙군요. 친구의 30% 남은 공사를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시 수업을 마치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 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과를 하면서 이 친구의 등을 토닥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우지 마라”, “양보 좀 해라”, “참아라”하는 백번의 진부한 잔소리보다 한 편이 시가, 그 속에 살아있는 질문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준 것입니다. 이런 공유를 통해 나의 이야기와 친구의 이야기는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를 4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첫 해는 이 시를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시를 낭송한다기 보다 그저 줄글처럼 내용 파악을 위해 여러 번 읽고 비유적 표현에서 비유한 대상을 찾고 둘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때 질문은 정답을 찾아가는 역할을 했고 학생들의 대답이 정답이 아니면 제가 답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질문에 대한 교사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집중하여 귀기울여주고, 아이들의 작은 반응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아이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충분히 기다려주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연결 짓고 되돌리면서 때로는 생각의 꼬투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말입니다. 교사의 질문이 달라지면 수업이 바뀌고 학생들도 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 03. 내 글을 써보기

저는 국어 수업 중에서도 특히 시 수업을 좋아합니다. 시는 짧아서 몇 번을 읽고 나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이고 또 본보기시에다 자신의 경험을 담아 시의 일부분을 바꾸어 쓰다 보면 쉽고 재미있게 자신의 시를 쓸 수 있어서입니다. 시 쓰기의 디딤 역할을 해주는 활동이 바로 시의 일부분 바꾸어 쓰기인데 바꿀 건 바꾸고 살릴 건 살리다 보면 어느새 본보기시와 전혀 다른 내 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에도 질문은 큰 역할을 합니다.

몇 해 전 5학년 학생들과 <엄마와 나>라는 시를 가지고 바꾸어 쓰기 수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과연 학생들은 시를 왜 바꾸어 쓰는지 알고 있을까? 그저 교과서에 바꾸라고 하고 선생님도 바뀔보자 하니 바꾸어 보는 건 아닐까?, 시를 바꾸어 쓰기의 좋은 점을 어떻게 알게 할까?’, ‘시를 왜 바꾸어 쓰는지 알고 나면 수업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저는 시 바꾸기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시를 왜 바꾸어 쓸까하는 생각을 갖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시 바꾸어 쓰기 활동 전에 가수 <소녀시대의 gee>와 무한도전의 <중년시대의 에너gee> 두 동영상을 비교하며 시청하도록 한 다음 바뀐 부분을 찾아 보도록 하였습니다. “가수가 바뀌었어요.”, “노래 제목이요.”, “가사도 바뀌었어요.” 이때 교사는 다시 묻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후렴구는 살리고 에너지를 아끼자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짝과 왜 노래를 바꾸었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자란 말을 하려고요.”, “하고 싶은 말을 전하려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등 기존의 노래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가사를 바꾸었고 일정한 부분은 살리면서 바꾼 것도 찾아내었습니다. 이 때 “바꿀 건 바꾸고 살릴 건 살리자”라는 구호가 만들어졌고 이는 시 바꾸어 쓰기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시를 낭송하고 내 경험으로 쓰고 싶은 내용의 개요를 짜고 글감에 대한 내 경험을 모둠 친구들과 나누었습니다. 학생이 내가 되고 엄마가 우리 엄마가 되면서 시의 내용은 나의 이야기로 바뀌어 갑니다. 그 때 5학년 전체 학생 중 키도 제일 크고 똥똥해서 놀림을 받던 ○○이가 자신의 경험으로 바꾼 시 내바시 발표합니다. “(중략)그러나 꼭 한 가지 닮기 싫은 것은 똥똥한 것이다. 똥똥해서 놀림을 받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다. 엄마와 닮은 게 좋기만 하다.” 순간 교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이제껏 친구가 똥똥하다고 놀렸던 친구들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변합니다. 이 시 한편이 학생들의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리 시간에 친구의 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의 시를 용기 있고 솔직한 시라고 추천하였습니다. 그 때 우리○○이의 밝은 표정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똥똥하다고 놀리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닮은 거니까요.

4학년 1학기 10단원 <감동을 표현해요>입니다. 내 경험을 떠올려 시를 바꾸어 쓰는 수업으로 피천득 시인의 <저녁 때>를 본보기 시로 “이런 때가 저녁 때 입니다. 이런 때가 저녁때입니다.”부분을 살려서 자신이 ( )한 때로 바꾸어 써 보았습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네 기분을 말해봐>동화를 활용하여 책을 읽어 주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때는 언제인가요?”로 질문을 하면서 감정과 관련된 때로 슬플 때, 혼자 있고 싶을 때, 눈물 날 때 등으로 시 바꾸어 쓰는 방법을 본보기시를 통해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본보기 시처럼 저녁 때, 아침 때, 새벽 때,

배고플 때, 놀고 싶을 때, 학원갈 때 등으로 바꾸어도 된다고 하니 부담 없이 술술 써 내려 갔습니다. 아이들이 본보기시에다 자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내기만 하면 시는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내 경험으로 시를 바꾸어 쓰는 것은 시 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시 쓰기 창작의 디딤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큰 의의를 지닙니다.

<기분을 말해 봐> 동화의 몇 장면을 함께 보면서 내 경험을 떠올려 시를 바꾸어 써 보기로 하였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김은영)>시를 본보기 시로 하고 내 경험과 연결 지었습니다. 합창낭송, 재미음미 모둠낭송으로 비슷한 나의 경험 떠올리도록 한 다음 질문하였습니다. “이 시를 읽고 나니 떠오르는 사자성어나 속담이 생각나나요?” “설상가상”입니다. “엮친 데 덮친다”입니다. 지금부터 모둠끼리 엮친데 덮친 격의 정말 싫었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둠에서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놀고 싶어 학원가기 싫었던 일, 동생 때문에 억울했던 일, 게임하면서 속상했던 일 등 학생들의 입에서는 쉬 새 없이 억울하고 힘들었고 속상했던 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너도 그랬니? 나도” 공감의 말들도 이어집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기에 시로 쓸 내용이 풍부해져 갑니다. 그리고 시의 어느 부분을 살리고 바꿀지 이야기 나눈 다음 학습지에 시 바꾸어 씁니다. 그런 다음 자유 짝, 모둠 공유한 다음 전체와 공유합니다. 이때 먼저 쓴 친구들끼리 나누고 모두가 다 쓰면 모둠원끼리 돌아가며 읽고 마음에 와닿는 울림이 있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정리 내면화 단계에서 학교 학급 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떠올려 이야기 나누고 모둠원이 한연씩 두줄시를 써서 모둠시를 완성하고 전체를 학급시 공유합니다. “내 경험으로 시를 바꾸어 써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봅시다.

“내바시(내 경험으로 바꾼 시)는 ( 현미경 )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자세히 드러다 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험으로 시를 바꾸어 쓰도록 구체적인 방법 ‘살릴 건 살리고 바꿀 건 바꾸자’를 구호로 제시해 줌으로써 쉽게 시 바꾸어 쓰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바꾸는 범위를 시의 낱말, 행, 연으로 점차 확장해 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상위 창작인 시의 주제만 살리고 온전히 자신만의 새로운 시 쓰기가 가능해 질것입니다.